

그림에게 말 걸기 - 3

명랑한 절망을 그리다

- 프랜시스 베이컨

글. 남우주 그래픽 디자이너 / 무지크바움 실장



프랜시스 베이컨 사이트
www.francis-bacon.com/art

‘이상하네, 내가 그리려고 했던 게 이게 아닌데…’

‘이상하다. 내가 원래 쓰려고 했던 게 이런 분위기였나?’

하얗게 밤을 새운 뒤, 아침 햇살 속 적나라하게 드러난 작품을 보고 많은 창작자가 종종 내뱉는 말이다. 머릿속에 떠오른 이미지와 붓질이 자꾸만 미묘한 차이로 비껴가고 생생한 장면을 묘사했다고 생각한 글이 다시 읽어보니 지루하게 풀이 죽어 있는 상황. 간밤에 빛나던 영감의 문은 닫혔다. 오래도록 그 문은 열리지 않을 것만 같다.

이렇게 표현 전의 것과 표현한 것 사이엔 늘 괴리가 있다.

어떤 날엔 결과물이 나쁘지 않다. 내가 창작한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마음에 드는 순간, 그럴 땐 우연에 공을 돌리기보단 자신의 재능에 우쭐할지도 모른다. 예민하게 촉을 세워 한번 잡은 영감을 끝까지 놓

지 않고 버틴 결과라고 생각한다. ‘다 내가 잘 해서 그런 거야.’라고. 그런데 여기 자신의 작품을 ‘우연’이라며 대놓고 말하는 화가가 있다. 자신은 운과 우연의 매개물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여기까지만 보면 겸손한 화가겠거니 하겠지만 그의 작품을 한 점이라도 보게 된다면 등골이 오싹해지거나 전기가 통한 듯 화들짝 놀라게 된다. 어떤 힘에 뒤틀린듯한 몸뚱아리, 비현실적인 공간과 뭉개진 얼굴, 그 아래 벌어진 입과 가지런한 치아를 보면 자연스럽게 공포가 밀려온다.

‘이게 도대체 뭘 그린 거지?’

스스로 본 것을 반문하게 만드는 그림은 이질적이고 독특한 감각을 발명한 화가, 바로 프랜시스 베이컨의 작품이다.

지금까지 이런 그림은 없었다.

이것은 구상화인가. 추상화인가.

그의 그림은 설명을 거부한다. 누구에게 베이컨의 작품을 설명하려고 하면 머릿속에서 말이 자꾸만 뒷걸음질 치는 느낌을 받는다. 베이컨의 ‘회화’라는 작품을 보고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친구에게 전화를 받는다면 아마 이렇듯 같다.

- 베이컨 그림 어때? 뭘 그렸어?

- 음… 모르겠는데… 그냥 엄청 세. 뭔가가.

말로 설명하기 힘든 에너지는 당시 많은 비평가와 감상자에게 충격을 주었고 그 충격은 지금까지도 진행 중이다. 모네나 르누아르 그림처럼 아름답지도 않고 몬드리안의 추상화처럼 정돈되어 있지도 않아서 집에 걸어 놓으면 왠지 불길할 것만 같고 꿈자리가 사나울 것만 같은 그림. 그런데도 사람들은 열광한다. 거장들의 영화에 등장하고 ‘감각의 논리’를 쓸 만큼 들뢰즈의 흥미를 사로잡았다. 게다가 항상 고가의 회화 목록에서 상위를 차지한다. 미보다는 추에 가깝고 쾌보다는 불쾌를 유도하는 그림들. 도대체 베이컨 그림의 매력은 무엇일까?

언어가 사라지는 지점

우린 살면서 말을 잃을 때가 종종 있다. 거대한 자연과 마주했을 때 어떤 숭고함에 말을 잃고 강렬한 분노에 사로잡혔을 때도 말 대신 고통을 지른다. 구구절절한 사연을 일일이 설명해야 할 상황에 가슴이 턱 막혀 침묵을 선택하기도 한다. 말이 사라지는 지점엔 언어로 잡히지 않을 만큼 강렬하고 복잡한 감정이 자리할 때가 많다. 베이컨의 그림 앞에서도 마찬가지다. 다양한 의미를 포착하기 위해 말을 떠올리지만 정확한 말이 떠오르지 않는다. 이상하게도 그의 그림은 언어를 압도하는 힘이 있다.

언어를 압도한다는 말은 구상에서 벗어나는 말과 같다. 이건, 사과네. 이건 무용수를 그렸네, 이건 들판이네... '무언가를 그렸네.'라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구상에서 그의 그림은 벗어나 있다. 그렇다고 추상이라고 볼 수도 없다. 선과 색채, 혹은 작가의 관념을 따라가거나 스스로 열린 공간에서 상상할 수 있는 추상도 아니다. 그의 그림 속엔 강렬한 뭔가가 보이는데, 그게 분명 사람 같은데 정확하게 뭔지 모르니 찢찢한 기분이 남는다. 실제로 베이컨은 매끈한 이야기와 뚜렷한 이미지가 생겨나지 않도록 많은 주의를 기울였다. 형상을 뒤틀고 솔로 문질러 얼굴을 마모시켰다. 난데없이 화살표를 출현시키거나 형상들을 인위적인 원이나 정육면체로 가둔다. 이런 다양한 노력 덕분에인지 감상자는 이야기를 누르는 강렬한 형상을 직접적으로 느낀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형상을 보게 된다. '이게 뭐지?' 하고. 예쁘지도 않고 편안하지도 않은데 자꾸만 보게 만드는 힘. 도대체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신경계와 고통

"나는 단지 이미지가 가능한 한 정확하게 나의 신경계에서 빠져 나오도록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회화에서 좀처럼 듣기 힘든 '신경계'라는 말은 희한하게 베이컨의 그림과 잘 어울린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세하게 뻗어있는 신경 다발들은 언어를 경유하지 않고 그저 직접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전달된다. 발끝을 움찔하게 만드는 치과의 신경치료나 걸음을 걸을 때마다 척추 신경을 짓누르는 디스크의 통증을 경험한 사람들은 알 것이다. 신경계가 언어 이전에 존재하는 원초적인 감각의 진원지이고 그 중에서도 고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걸.

베이컨은 "모든 고통 받는 고기는 인간이고, 모든 고통받는 인간은 고기"라고 말한다. 고통을 점점으로 인간과 고기를 같은 선상에 놓고 보는 시각은 다소 도발적이다. 진화의 실타래를 거슬러 올라가 아직 종이 분화되기 전의 '생명'을 떠올릴 수도 있다. 그래서 보통 이 문장을 듣거나 본 사람들은 으레 생명존중이나 생명윤리의 개념과 연결 지으려고 하겠지만 그건 선부터 판단이다. 베이컨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는다는 사실로 인해 마음이 상하지 않으며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사회에 회의적이라고 무심하게 말하니까. 그의 감각은 분명 사회적 윤리나 보편적인 아젠다의 범주를 벗어나 있다. 심지어



프랜시스 베이컨 / 그림 : 남우주

그는 정육점에 걸려 있는 고기를 보고 아름답다고 말하기도 한다. 유기체에서 분리된 형상 자체가 아름답게 다가오는 건지, 고통을 느껴서 아름답게 느끼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는 고통에 매료됐고 그것에 집중했다. ‘왜 하필 신경계와 고통일까?’를 고민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베이컨의 화두가 떠오른다.

인간은 왜 정육점의 고기가 아닌가

이 말은 인간 존재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 같다. 인간을 인간이게 만드는 요소들, 이를테면 언어, 문화, 규범, 윤리, 시선 등 베이컨은 인간됨의 요소에 회의적이거나 적어도 자유로웠다. 인간됨의 요소를 인간 존재를 가리는 장막과 같다고 여기며 장막을 제거했을 때 비로소 인간 본연의 존재가 드러난다고 믿었다.

"때때로 사람들이 내 작품이 폭력적으로 보인다고 말할 때 내가 가끔은 그 장막 한두 겹을 제거할 수 있었나 보다 하고 생각합니다."

장막을 제거하면 뼈와 살과 신경계를 가지고 있는 유기체만 덩그러니 남는데, 이 상태에서 정육점의 고기와 인간을 나누는 경계는 ‘살아 있음’ 외에는 없을 것이다. 이제 ‘살아 있음’의 정의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우리는 언제 생생하게 살아 있다고 느낄까? 사랑하는 사

람과 맛있는 걸 먹는 순간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절벽에서 번지점프를 하는 순간일 수도 있다. 베이컨은 생생하게 살아 있음을 느끼게 하는 건 ‘고통’이라고 여기는 듯하다. 그래서 장막을 벗고 고통을 느끼는 존재는 고기이며 인간이다.

베이컨의 그림은 ‘인간’이라는 신화를 벗기는 작업으로도 볼 수 있다. 인간을 둘러싼 문화를 벗기고, 규범을 벗기고, 언어를 벗기고... 그렇게 인간은 별거벗은 인간, 아직 포장되기 전의 인간으로 돌아간다. 포장되기 전의 인간의 형상은 낯선 감각일 수밖에 없다. 그것은 우리를 둘러싼 상징체계가 형성되기 전의 감각일 테니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비로소 ‘신경계에서 이미지를 꺼낸다’는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인간의 상징체계에 없는 낯것의 형상은 신경계를 통할 수밖에 없다.

이런 그의 독특한 생각은 비단 작품에만 적용되지 않는다. 베이컨 자체가 사회적 윤리 기준에서 벗어난 별거벗은 인간에 가깝다는 느낌을



정육점 / 출처 : unsplash.com

받는다. 지금보다 경직된 사회에서도 동성애를 숨기지 않았고, 쉽게 꺼낼 수 없는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는 데도 주저함이 없었다. 평론가 실베스터와의 대담에선 어릴 때 아버지에게 성적인 매력을 느꼈다는 과감한 발언을 하기도 한다. 두 명의 애인을 불행하게 잃고 강렬한 고통에 힘들어하면서도 작업에 몰두했다. 친구들에게 독설을 날리고 오히려 그런 ‘아름다운 모독’을 할 수 있는 사이를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했다. 남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그림을 그린다고 말하며 돈이 없던 시절에도 친구들에게 술을 사고 도박에 거침없이 뛰어들었다. 가진 돈이 없을 땐 자신이 필요한 것들을 훔쳤으며 훔치는 것에 대해 아무런 느낌이 없다고 고백한 바 있다.

명량한 절망감

베이컨처럼 솔직함을 넘어 거침없는 사람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든다. ‘저 사람은 무서운 게 없나?’하고. 삶에 어떤 희망도 품지 않고 살거나 아니면 자신만의 확고한 신념 체계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베이컨은 둘 다에 해당한다. 여러모로 이해하기 힘든 베이컨은 삶이 철저히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조금은 특별한 방식으로 알아차렸다. 17세의 베이컨은 산책 중에 길에서 개의 배설물을 보고 죽음과 인생무상을 느껴 몇 달간 괴로웠다고 한다. 하지만 절망하며 삶을 포기하지는 않는다. 스스로 의미를 찾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만의 감각을 발견하고 그것을 그리는 일이었다.

"내 그림은 내 마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명량한 절망감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에게 ‘명량한 절망감’이란 삶에 비관적인 인간이 자신이 살아 있음을 확인하는 고유한 존재 양식이었다.

그는 ‘벌거벗은 인간’이기에 무의식을 억압하지 않았거나 덜 억압했고 무의식에서 흘러나오는 이세계(異世界)의 이미지를 두려워하지도 않았다. 발 디딜 틈 없이 혼란한 작업실에서 그는 몇 시간이고 공상에 잠겼다. 곳곳에 떠다니는 아름다운 이미지가 슬라이드처럼 떠오르고 몇 시간이고 그 이미지들을 바라본다. 그러다 부릅뜬 눈으로 캔버스를 응시한다. 좀처럼 손에 잡히지 않는 이미지를 온전히 표현하기 위해 분투한다. 그리다가 망치고 다시 그리다가 버리고 다시 그린다. 우연의 힘에 맡기지만 그렇다고 온전히 우연에만 맡길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뭐라도 해야 했다. 먼지를 물감에 섞어 칠하기도 하고, 얼굴을 솔로 문지르거나 물감을 던지기도 했다. 자신의 붓을 타고 나타나는 형상은 그가 보았던 형상에서 자꾸만 비껴갔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렸다. 숙취가 있는 날에도 어김없이 아침에 일어나 그림을 그렸다. 그것만이 진정으로 살아 있음을 느끼는 순간이었고 정육점의 고기가 아니었다. 그렇게 원하는 형상이 우연의 힘을 빌려 드러나게 될 때 비로소 그는 붓을 멈췄다.

베이컨의 그림에서 나오는 알 수 없는 에너지는 낯선 형상 그 자체였다. 언어와 감정을 통하지 않고 자신을 당당히 드러내는 존재들. 이런 새로운 존재가 기존의 세계 안으로 들어와 신경에 쏘이는 힘으로 소리친다.

“나는 그저 나로 존재한다.”

고유한 나로 살기

베이컨은 부지런히 그림을 그리고 사랑을 했다. 그리고 1992년 스페인의 마드리드에서 죽었다. 스페인에 있는 애인을 만나러 갔다고 추측하지만, 그 애인은 베일에 싸여있다.

여러모로 기이한 베이컨을 설명하는 말은 많을 테지만 이렇게 표현하고 싶다. 베이컨은 주류의 시각에 교정되지 않고 자신의 삶과 감각을 버려낸 고집스러운 인간이고 그렇게 자신의 작품과 삶으로 ‘고유한 나로 살기’를 시전했다고. 베이컨의 그림 앞에서 감상자는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로 반응할 것이다. 하나는 머리로, 또 다른 하나는 신경계로. 그의 그림을 본 누군가가 신경계를 통해 찌릿한 고통, ‘살아 있음’에 공명한다면 ‘고유한 나로 살기’가 그 속에서도 꿈틀대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